



조계종 포교원장 혜충 스님, 12일 입재법문

깨닫는 것은 출가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생과 멸의 상대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이러한 이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만 생로병사를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공유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수의(壽次)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 몸을 위해 일평생 얼마나 거렸습니까? 부처님은 카파라성(城) 동·남·서·북 4 문 밖을 나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음과 늙음이 돌이 아님을, 항상하는 것은 없음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모습이 결국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생로병사로부터 영원히

다. 받을 자세, 수행할 자세가 돼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많은 중생을 건지니까. 혼자 살면 혼자 사는 만큼, 둘이 살면 둘이 사는 만큼 일이 많아집니다. 자식, 남편, 아내, 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출가를 미루고 나중에 선방에서 공부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살지, 내생을 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법을 믿고 그 법대로 행하는 자는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받습니다. 부처님은 약을 줄 따름이지 먹고 안 먹고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셋째, 남이 못하는 것을 기꺼이 하는 자가 부처님입니다.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여불(尊行能行 尊重如佛) 하기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하면 존중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함이라고 합니다. 남이 다 하는 것, 남이 하는 대로 살면 남만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지 못할 만큼의 한계에서 참는 자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자' 인 것입니다.

인도 정반왕의 태자 고타마 싯다르타는 16세에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낳아 남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왜 출가를 했을까요? 부처님은 카파라성(城) 동·남·서·북 4 문 밖을 나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음과 늙음이 돌이 아님을, 항상하는 것은 없음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모습이 결국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생로병사로부터 영원히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13일 서원의 날 법문

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힘, 깨우침의 힘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신교 행사인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은 것을 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을 진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함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은 뒤를 쳐다 볼 수 없습니다. 뒤는 마음이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오염되면 멀리 볼 수 없고, 눈 앞의 것만 보게 됩니다. 출가자는 진리를 위해 출가합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진리는 생명의 힘이고 존재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허황된 것을 아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허황된 것은 힘은 있으나 생명이 없습니다. 더 크고 무성할지언정 생명을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생명의 힘이 약합니다.

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힘, 깨우침의 힘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신교 행사인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은 것을 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을 진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함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은 뒤를 쳐다 볼 수 없습니다. 뒤는 마음이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오염되면 멀리 볼 수 없고, 눈 앞의 것만 보게 됩니다. 출가자는 진리를 위해 출가합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진리는 생명의 힘이고 존재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허황된 것을 아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허황된 것은 힘은 있으나 생명이 없습니다. 더 크고 무성할지언정 생명을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생명의 힘이 약합니다.

고, 세상을 아름답고 안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욕망에 물들지 않기 위해 출가를 했습니다. 물들지 않는 수행이 출가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보면 물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세우고 발원을 하고, 기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출가는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를 한계를 극복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욕심과 고집으로 인해 서로를 핍박, 협박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성과 쇄신은 스스로 반성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출가 열반해서 깨우치는 것입니다. 스스로 출가해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고, 욕망의 힘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출가해서 어려서움을 이겨내고 진리를 얻은 분

5대 결사는 우리가 가야할 길

벗어나는 법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싯다르타 태자만의 출가만이 출가일까? 비록 출가자가 되지 못했는지언정 마음으로는 출가를 해 부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불교를 알고자 한다면 첫째, 무상한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싯다르타 태자가 왕위를 계승해 천년만년 세세생생토록 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왜 일까요?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물체라도 인(因)에 의해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합니다. 이 진리를 정말 마음 속 깊이

쓰면 독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중도사상으로 오욕락을 바라봅니다. 부처님은 오욕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건지기 위해 연기법, 중도법, 무아법을 설하셨습니다. 오욕락에 물들지 않는 것이 출가입니다. 둘째, 설산동자의 위법망구의 정신과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법을 듣는 사람은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하는 자세로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만 너무 믿어도 안 됩니다.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이요? 부처님은 그냥 도와주지 않습니

자신을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自燈明法燈明]고 했습니다. 오욕락을 수용하면서 집착하지 않고 적당히 사용하면서 공부에 매진하면 생사에서 초탈하는 길이 있습니다. 마음은 본래 허공과 같이 걸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출가를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찾는 것이 자성과 쇄신을 위한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 5대 결사입니다. 5대 결사의 원동력은 오욕락을 잠재우고, 부처님의 팔정도 사성제 사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성과 쇄신이 곧 출가·열반

일본은 지진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민족이 아니지만 아픔과 고통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진리로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남의 나라, 다른 민족, 내 것이 아니라며 바다 건너 볼 보듯 하는 사람은 진리·생명의 힘이 약한 사람입니다. 진리는 함께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삼라만상은 그물처럼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물을 찢어 '혼자' 영광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평화를 해치는 일입니다.

적인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족만 단란하게 살고자하는 이기적인 욕심과 그릇된 생각이 그물을 찢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진리가 무너진 곳, 법이 사라진 곳에서는 세상 전부가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지혜와 깨우침이 있는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고 배려합니다. 첫째,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연꽃은 더러운 곳에 있어도 때 묻지 않는 처럼상정(處染常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욕망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리이고 힘이

입니다. 씻던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파사현정(破邪顯正)', 자성과 쇄신은 인간이 죽을 때 까지 항상 지켜야할 가치입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진리, 법을 위해 자기 몸을 던질 때에 한계가 보입니다. 두려움으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두려움은 점점 커질 뿐입니다. 소중한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야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은 것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 출가·열반일 동안 조계사는 야단법석

부처님이 출가하고 열반한 출가열반절인 3월 12(음 2.8)~19(음 2.15)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충)과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에서 '출가열반절 자성과 쇄신 5대결사 신도대중공사'를 개최했다.

대중공사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충 스님,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금부선원 선원장 혜국 스님,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정법 스님,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조계사 회주 무진장 스님 등의 법문과 기도정진, 문화행사 등이 진행됐다.

대중공사가 처음 진행된 12일은 일본 대지진 피해 소식이 전해진 하루 뒤였다. 법회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일본 대참사였다. 스님들은 모두 희생자와 일본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동참을 권했다. 불자들은 함께 기도하고 성금을 모아 전달하며 심신한 위로를 전했다.

법회의 중요한 주제는 불교계 내부의 자성이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 앞서 스님들은 불교계의 안일했던 모습을 따끔하게 지적하는 모습이었다. 법당은 8일간 야단법석을 이뤘다. 스님의 법문을 듣기위해 조계사 신도를 비롯한 곳곳의 신도들로 법당 밖에서 법문을 청했다. 오전 시간대여서 젊은 불자들의 참여는 거의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정리=이상연·이나라 기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교육기간: 14주 과정 토요일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지부교육원: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연수원 (바라, 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본 예술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2기(6개월 과정) 학인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학과: 강 의 내 용, 요 일, 시 간, 특 강
1. 기 초 이 론: 이론 및 실기·사물, 각종 사찰행사 실기, 목, 5~6시
2. 전 문 의 식: 전통소리(안정사), 삼신이음 및 전통불교의식, 무형문화재 제9호 오공양 작법소리, 북청계(천수바라), 금, 5~6시
3. 바 라 작법무: 오공양 작법무(은심작법, 다계작법, 삼귀의작법무), 목·금, 4~5시
특 전: 1. 본교생(졸업)으로서 성적우수한 자는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전수 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계 행사 출전 실무
3. 년 1회 정기행사 직접공연 (공연 발표회, 영산대제, 산신대제, 수륙대제 등)
제출서류: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모집기간: 2011년 2월 20일 ~ 3월 20일 (수시)
입 학 식: 2011년 3월 24일(목) 오후 3시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권 영 축 사
부산영산보존회 바라 작법무 연수원 / 부산 동구 범일동 1454-17번지 영축사 (구, 만덕동 혜동사)
연락처: 이사장 원산 스님 011-582-8975 / 혜화 교무스님 010-2563-5550